

한양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오후1 · 문제	3
오후2 · 문제	9
2025학년도 인문계열	15
오후1 · 문제	15
오후2 · 문제	17
2024학년도 인문계열	19
오후1 · 문제	19
오후2 · 문제	24

2026학년도 인문계열

오후1 · 문제

[문제]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에 등장하는 ㉠과 ㉡의 언행을 각각 평가하고, 이러한 개인들의 행태가 어떤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지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두 존재가 야생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주목해 보자. 두 존재는 대면 이전에는 스스로의 의식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욕망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아 왔다. 그런데 두 존재의 의식은 자신과 다른 욕망을 가진 의식을 대면한 이후 상대의 힘을 깨닫고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 척도로 삼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투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의식이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의식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자신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쟁에서 승리한 의식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종속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때 승리한 존재는 노예의 인정을 통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식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반면에 노예는 자신과 인간의 한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주인이 스스로를 인정받기 위해 노예인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주인은 자연에 관여하지 않은 채 모든 육체적 노동을 노예에게 위임하고, 노예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제품을 스스로 생산한다. 노예는 점점 더 세련된 제품을 생산해 냄에 따라 자신이 창조자임을 발견한다. 주인은 노동을 통한 자기 성찰을 완전히 결여한 채 전적으로 노예의 생산물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된다.

[나]

모든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의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도덕을,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준거를 기준으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구별해 보기로 하자. 이때 ‘주인’과 ‘노예’는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속성이나 자질을 표상하는 지칭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도덕은 권력의 유무나 강약과는 무관하며, 한 인간 내부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인 도덕의 체계에서 인간은 고유의 내재적인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한다. 그 가치는 행동의 내재적인 동기이자 준거가 되므로 도구적 유용성을 떠나 그 자체로 자기충족적인 완결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노예 도덕의 체계에서 인간은 어떤 악인(惡人)이 외부에 있고 그와 대조되는 상으로서 선인(善人)이 있다고 상정하고, 스스로 그 선인의 자리에 자신을 배치한다. 그리하여 그 악인을 고통의 원인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배출할 통로를 찾는다. 이때 그들은 악인으로 상정한 존재는 물론 제삼자인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혹은 악인으로 상정한 존재에 대한 감정을 감춘 채 그에게 순종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자기 보존과 확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그들은 가혹한 횡포를 정의로, 겁 많은 비열함을 겸손으로 미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도덕적 덕목들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처럼 노예 도덕의 취약성은 외재적 준거를 충족하려는 데서 비롯된 자기기만에 있다.

[다]

[앞부분 줄거리]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하급 관리로서 평생 서류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어느 날 낡은 외투가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해져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새 외투를 마련한다. 그러나 새 외투를 입은 첫날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외투를 언제 되찾을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동료의 조언을 듣고 외투를 한시라도 빨리 찾기 위해 한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기로 한다.

동료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 추천한 ㉡이 고위층 인사도 원래는 마음이 선량하여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장관이라는 직위가 그를 완전히 바꿔 버렸다. 장관직을 얻게 된 다음부터 그는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더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대부분은 현명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한 직급이라도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아주 졸렬할 정도로 단순해졌다. 입을 꼭 다물어 버려 남들 보기에 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이를 깨닫고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할 정도였다. 종종 그의 눈에서 재미있는 대화나 무리에 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정체되어 있었다. 너무 넘치게 베푸는 것은 아닐까, 너무 격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품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사고방식 탓에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침묵을 지켰고 가끔 짝막하게 한마디씩 내뱉은 것이 전부였으므로, 결국에는 따분한 인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찾아간 것이다.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시간에 찾아갔으니, 이 고위층 인사에게는 마침 적시에 나타나 준 것이지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는 사실 최악의 순간이었다.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찾아온 어린 시절의 오랜 지기와 더없이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짝막하게 물었다.

“누구야?”

그러자 “무슨 관리랍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 그래! 기다려야겠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여기서 이 인사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미 친구와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미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저 서로의 넓적다리를 툭툭 치며, “그렇게 됐군, 이반 아브라모비치!” 혹은 “그러게, 스체판 바를라모비치.”라고 입을 떼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관직을 떠나 오랫동안 시골에 묻혀 있던 친구에게 자신을 만나러 온 관리를 얼마나 오래 현관에 세워 둘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잡담을 실컷 하고 흡족한 기분으로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등이 젖혀지는 안락한 의자에서 담배까지 피운 다음에야, 그는 마치 갑자기 생각나기라도 한 듯 문가에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래, 거기 관리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겸손해 보이는 외모와 낮은 제복을 발견한 고위층 인사는 느닷없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

장관직을 얻기 일주일 전부터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일부러 연습하여 익혀 놓은 딱딱 끊어지는 정확한 음성이었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미리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최선을 다해 언변이 닿는 대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섞어 가며 완전히 새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총감이나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 주도록 청원을 좀 해 주십사 찾아왔다고 말했다. 장관은 웬지 모르게 그 같은 친숙한 태도가 버르장머리 없게 느껴졌다.

“귀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는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그러면 관공서에서 계장과 부장을 거쳐 비서에게 전달될 테고, 그다음 비서가 내게 보고할 텐데…….”

“하지만 각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겨우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때 그는 땀이 무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각하께 감히 폐를 끼치고자 결심한 것은 사실 그 비서라는 사람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뭣이 어찌고 어째?”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젊은이가 상관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아마 이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이미 오십 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만일 상대적으로 젊은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그가 일흔 살 먹은 노인과 비교될 때뿐이었던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도대체 알기나 해? 알기나 하냐 말일세! 대답해 봐.”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낮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만일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 나갔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하여 결눈질로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또 한 번 만족했다.

-니콜라이 고골, <외투>

■ 합격자 우수답안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인식한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인이 될 수도, 노예가 될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타인과의 관계는 사회적 지위를 확정하게 한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주인을 말할 수 없다. 주인이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를 주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노예를 자신에게 종속시켜 노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주체성을 상실한 채 의존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진정한 주인이라 할 수 없다. 자신에 종속된 노예의 노동, 그 결과물과 같은 의존의 결과를 통해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는 없다. 남들의 인정을 통한 자기 의식의 실현보다는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여 자존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에 마땅히 주인이라 불릴 수 있다. 즉, 표면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주인을 결정한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고위층 인사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겸손함으로 포장하고 장관에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한다.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에비치를 철저히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친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지에만 관심을 쏟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누구도 이 상황에서 주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아카키에비치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보지 않고 순응적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으로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행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자존의 근거가 스스로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하기에 생기는 문제이다. 만연한 학벌주의와 사회적 문법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풍토가 그 예시이다. 상대의 인정을 바탕으로 한 자존의 실현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과도하게 치중된다면 그저 허상을 좇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존이 외부에서만 근거로 한다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중심이 자신 안에 있을 때 생겨나는 내면의 자존은 무너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자아를 위탁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단단한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 자체로 증명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될 때에만이 누군가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또는 리더를 진정으로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만든 기준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내면을 가꾸고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채점 기준

1. 평가의 내용

- 1) 제시문 (가)에서 주인과 노예가 표면적인 의미와 달리 독립적이었던 주인이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반대로 의존적인 노예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연결하여 주인과 노예의 대비적 속성을 도덕적 준거의 내재성/외재성, 존재의 독립성/의존성, 도덕의 자기목적성/도구성 등으로 집약하되, 특히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독립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지 여부
- 2) 제시문 (가)와 (나)를 1)에서와 같이 종합적으로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다)의 ㉔와 ㉕ 모두를 노예적 속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3) ㉔와 ㉕와 같은 노예적 속성이 현대 사회에서 권위에 압도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는 현상, 지위를 앞세워 약자를 괴롭히는 현상을 야기하고 이런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갑질’과 같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만연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도록 한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취지의 사회적 함의를 서술하였는지 여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발문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가)와 (나)로부터 주인과 노예의 속성을 도덕적 준거의 내재성/외재성, 존재의 독립성/의존성, 도덕의 자기목적성/도구성으로 대별한 후, (다)의 등장인물인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와 장관이 모두 노예적 속성을 가진 인물임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서술하고, 지위를 앞세워 갑질과 같은 횡포를 부리거나 권위에 압도되어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패배주의 등의 사회적 현상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10
정확한 이해, 치밀한 분석, 창의	제시문의 종합적 이해 - (가)에서 주인과 노예가 표면적인 의미와 달리 서로 상반된 속성(독립성/의존성)을 가진 채 자리가 뒤바뀌어 있음을 파악하였는가?	25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적 적용 사이의 일관성 및 공동 체에 대한 성찰 과 그 서술의 구 체성		- (나)에서 주인과 노예의 속성을 도덕적 준거의 내재성/외재성, 존재의 독립성/의존성, 도덕의 자기목적성/도구성으로 대별하였는가? - (가)와 (나)를 종합하여 ‘진정한 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양심에 따른 내재적 준거의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리 있게 제시하였는가?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 (다)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권력자에 의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악인으로 상정된 장관에게 다소 비굴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노예의 속성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는가? - (다)의 장관이 악인으로 상정된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 횡포를 부림으로써 약자로부터 자신의 권세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면서 가혹한 횡포를 정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자기기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가? - (다)의 장관이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 횡포를 부리는 과정에서 친구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로부터 인정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타인 의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는가?	35
	사회적 함의에 대한 숙고	- 장관의 언행을 바탕으로 권위주의, 갑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혐오 등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성찰하고 있는가? -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언행을 바탕으로 부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 패배주의, 사회적 불의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과 같은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성찰하고 있는가?	20
문장과 표현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		10

※ 우수 답안 필수 조건 : (나)에서 밝힌 ‘순종, 비열한 겸손’ 등에 주목하여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의존성과 같은 노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나)에서 밝힌 ‘제삼자로부터의 인정’에 주목하여 장관이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 언어적 폭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 제삼자에 해당하는 친구를 의식했기 때문임을 드러내야 함.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B〉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① 글의 구성 측면에서 ②~④의 순서로 서술 내용을 명료하게 구성·조직하고,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취하고 있다. ② (가)와 (나)를 종합하여 주인과 노예의 속성을 도덕적 준거의 내재성/외재성, 존재의 독립성/의존성, 도덕의 자기목적성/도구성으로 대별하고 ‘진정한 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조리 있게 제시한다. ③ (다)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권력자에 의존하여 자신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다소 비굴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바탕으로 노예의 속성인 의존성을 보이고 있고, 장관이 횡포를 부림으로써 악인으로 상정된 약자, 그리고 제삼자인 친구로부터 자신의 권세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타인에 의존하고 자기기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④ 장관의 언행을 바탕으로 권위주의, 갑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혐오 등의 병리적 현상을,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언행을 바탕으로 부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 패배주의, 사회적 불의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병리적 현상을 성찰하여 제시한다.	①~④ 중 한 가지의 요건이 다소 미흡한 경우.	①~④ 중 두 가지의 요건이 다소 미흡한 경우	-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는 진술, 제시문의 동어 반복적 서술 및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 700자 미만.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이내	1,250자 초과	1,100자 이상 1,150자 미만	1,050자 이상 1,100자 미만	1,000자 이상 1,050자 미만	950자 이상 1,000자 미만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원고지 사용법· 어문 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			-3 ~ -5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구분이 없거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인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글이 매끄럽다고 해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
 - ①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분량의 상당 부분을 채운 경우
 - ② 발문에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과 무관하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

오후2 · 문제

[문제] (가)의 ㉠을 활용하여 (나)의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을 중심으로 (다)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200자, 100점)

[가]

우리가 X를 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앎은 우리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앎은 갑과 을이 각각 X를 알고 있다는 개인 지식이나 갑과 을 모두 당연히 알아야 하는 X라는 상식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아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사회적 맥락에 어울리고 공동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나아가 우리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거나 바꾸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가령, 어떻게 우리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마음 편히 사용할까? 이 지폐가 10,000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우리가 이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려면 단지 각자가 지폐의 가치를 안다는 사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폐의 가치를 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지폐가 단지 무용한 종잇장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약속의 결과임을 확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어느 날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조만간에 폭락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 사회 안에서 급작스레 공통의 앎으로 폭증한다면, 사람들은 당장 모든 종이돈을 팔아서 그에 상당하는 금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안다는 것에 대한 모두의 앎’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유행, 관습, 계약, 규범, 제도, 법, 체제 등에 대한 집단행동의 조정과 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설명할 때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예컨대 독재 권력은 감시와 검열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을 개인 안에 가두어 억압하지만, 그렇게 억압된 앎이 일련의 공개적 사건을 통해 순식간에 집단이 공유하는 앎으로 전환됨으로써 광범위한 시민 불복종이나 민주주의 개혁을 이끈다면, 이는 긍정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마땅히 개인의 사적 지식으로 남아야 할 유명인의 사생활을 강제로 들추어내어 인터넷에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무도한 댓글과 집단 공격으로 해당 인사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혐오 문화의 만연을 조장한다면, 이는 강제된 앎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이다.

[나]

옛날 어느 나라에 새옷 입고 멋내는 것만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옷을 갈아입느라 매일같이 신하들에게 새옷을 지어 내라고 다그쳤지. 하루는 이웃 나라의 재봉사 형제가 임금님의 소문을 듣고 성을 찾아왔어.

“임금님, 저희는 세계 최고의 재봉사입니다. 게다가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기한 옷감도 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크게 반기며 오동나무로 만든 베틀과 북은 물론이고, 금실과 은실, 온갖 보석까지 아낌없이 형제에게 내주었어.

재봉사 형제가 옷을 짓기 시작한 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어느덧 일 년이 지날 무렵, 건디다 못한 임금님이 신하에게 형제가 무얼 만드는지 살피라고 명했어. 이에 신하가 형제의 작업실을 찾아가니, 재봉사가 있지도 않은 옷을 들어 보이는 척하면서 호들갑스럽게 말했지.

“이것 좀 보십시오. 무지갯빛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 옷이 어디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신하는 자기더러 어리석다고 할까 봐 더럭 겁이 났어.

“오, 이렇게 멋진 옷은 처음 보았소.” 신하는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하고는 재봉사 형제를 임금에게 데려갔지.

“임금님, 새옷을 다 지었습니다.”

형제가 커다란 상자에서 옷을 꺼내 임금에게 입혀 주는 시늉을 하며, “이 고운 빛깔과 아름다운 무늬를 보세요. 새털처럼 가볍고 정말 근사한 옷입니다. 임금님께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라고 아첨했어. 함께 있던 신하들도 모두 거들었지.

임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의아했지만, 신하들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봐 점잖게 말했지.

“아주 멋진 옷이구나. 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할 것이다.”

팜파라 밤 팜! 임금의 행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 백성들은 벌써 새옷을 보려고 성 앞에 가득 모여 있었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래.”

잔뜩 기대하던 백성들은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 하지만 손뼉을 치며 임금의 옷을 칭찬했지.

“역시 멋진 옷은 달라.”

벌거벗은 임금은 입이 짹 벌어져서 한껏 뽐내며 행진을 시작했대.

그때, 한 아이가 소리쳤어.

“하하하! 저것 좀 봐!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정말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백성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웃어댔어.

임금은 너무나 창피해서 온몸이 빨개졌지만 그렇다고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지. 벌거벗은 임금은 끝까지 의젓한 척 걸었단다. 신하들도 얼굴을 붉힌 채 임금 뒤를 따랐어.

[다]

한 지역의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소수의 지역 인사들이 모인 행사에서 특정 배경의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주류 공영방송인 A 매체는 해당 후보자의 발언을 중요한 공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련 심층 취재를 진행한 뒤 사실에 기반하여 이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주요 뉴스로 연이어 내보냈다. 이튿날에도 A 방송사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후속 보도를 방영했고, 관련 뉴스 기사들은 A 방송사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 채널에도 공유되어 순식간에 수십 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틀 후, 온라인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누리 소통망 채널 B는 A 방송사가 해당 후보자의 발언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짧은 영상 수십 개를 제작하여 집중적으로 게시했다. B 매체는 문제의 후보자가 소속된 특정 정파의 지지자들이 주를 이루는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대다수는 A 방송사가 이전부터 줄곧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들에 대한 편파 보도를 일삼아 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었다. 이 영상들은 구독자들과 지지자들에 의해 수없이 반복적으로 조회되었고, 댓글 창에는 A 방송사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각종 비방 글이 폭증했다. 이와 거의 동시에 A 방송사의 누리 소통망 채널에도 악성 댓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관련 영상들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삼시간에 온라인으로 퍼져 나갔다.

■ 합격자 우수답안

(가)의 ㉠은 ‘특정 사실을 모두 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앎이다. 이는 개인의 지식·단순 상식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 앎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또 사회규범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다. (나)에서 임금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임금이 벌거벗었음을 안다. 하지만 옷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통념이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도 임금이 벌거벗었다 말하지 못해, 이는 단지 개인 지식 차원에 머무른다. 그러나, 순수한 아이의 발언을 통해, ‘모두가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순식간에 개인 지식이 집단이 공유하는 앎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웃으며 임금을 조롱한다.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의 권위를 존중하던 기존의 규범이 사라졌다. 한편 왕과 신하들은 끝내 이러한 변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매체는 자칫 소수만이 알고 은폐될 뻔한 사실을 찾아내 보도했다. 이는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보도였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개인 지식 차원에서 해당 후보의 발언을 인지했다. 또 이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기에, ‘모두가 해당 후보의 발언을 안다’는 사실도 집단의 앎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부당한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상식적인 시민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를 비판하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 긍정적 사례이다. 한편 B채널은 이전부터 A매체가 편파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B채널 시청자들은 상식적인 시민들과 달리, A매체가 편파적이라는 개인적 지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때 B채널이 해당 발언이 A매체의 과장이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A매체의 편파성’이라는 잘못된 지식과, 다른 정치 성향에 대한 혐오가 B채널 시청자들의 공통된 앎이 됐다. 따라서 이들은 가짜뉴스와 혐오를 인터넷 곳곳에 전파하였다. 이는 ㉠의 부정적인 사례이다.

(다)의 문제 상황은, 결국 B채널 구독자들만의 ㉠이, 상식적인 시민들의 ㉠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었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괴리는 무엇에서 기인하였을까? 필자는 이것이 뉴미디어 특유의 편향적인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뉴미디어는 사용자 개인의 선호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정치 분야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의견을 공유하게 만든다. 실제로 B채널도 뉴미디어인 SNS를 기반으로 하였다. 반대 의견이 없는 B채널의 댓글창은 편파적 가짜뉴스와 혐오로 가득 차게 됐다. 이는 결국 사회 분열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뉴미디어의 편향적 알고리즘 규제가 필요하다. 또, 뉴미디어상에서 동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이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 채점 기준

1. 평가의 내용

- 1) 제시문 (가)의 ㉠이 의미하는 공통 지식과 이에 관련된 주요 개념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의 상황과 의미를 분명하고 짜임새 있게 설명했는지 여부
- 2) 1)에서 구성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매체를 통한 여론 형성 양상의 복합성을 ㉠이 지시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는지 여부
- 3) (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짜임새 있게 서술하였는지 여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가)에서 파악한 공통 지식 개념을 (나)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의 요소들과 연결하여 짜임새 있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다매체 환경에서의 여론 형성이 갖는 문제의 복합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가?	10
정확한 이해, 치밀한 분석, 창의적 적용 사이의 일관성 및 합리적 의견의 구성	제시문 이해와 적용의 정확성 - 제시문 (가)의 ㉠(공통 지식)과 ㉡(사회적 결과)이 지시하는 바와 이에 관련된 개념들(사적 지식, 집단행동, 공개적 사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이야기 요소들(배경, 인물, 사건의 전개)을 파악하고, 상황의 인과적 전개와 의미를 공통 지식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였는가?	20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과 서술의 구체성		- 제시문 (다)의 매체 A와 B가 여론 형성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영향을 사회적 결과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였는가?
	분석의 엄밀성과 일관성	- (가)의 ㉠이 지시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 요소들을 활용하여 (나)의 이야기 상황의 전개와 의미 구조를 정확하고 짜임새 있게 설명하였는가? - (다)의 문제 상황을 (가)의 ㉡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제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통 지식 형성 및 집단행동 조정 과정에서 매체 A와 B가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다)의 상황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가? - (다)에서 분석한 문제 상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들어 제시하였는가?*
	이해의 적용과 의견 서술의 합리성과 창의성	- (가)의 개념 이해, (나)의 이야기 상황 설명, (다)의 실세계 문제 상황 분석 사이에 용어의 일관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지켜졌는가? - (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다각도의 사회적 해결 방안을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서술하였는가?
	근거와 사례의 적합성	- 글에서 전개하는 논리와 주장의 근거가 제시문에 기반하고 있는가? - 논지에 어울리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사례를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가? - 논제에서 벗어난 극단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는가?
문장과 표현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	10

* ㉠을 활용한 (나)의 상황 설명

㉠ ‘이러한 앎’의 개념	(나) ‘벌거벗은 임금님’ 적용
① 사적 지식, 억압된 앎, 침묵 행동, 기존 규범 유지	• 각각의 신화와 백성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사실(X)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음. • 이들 각각은 ‘다른 사람들도 X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사적 지식), 또는 X를 알아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침묵함(억압된 앎). • 따라서 ‘새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부당한 사회적 규범이 유지됨. • 임금도 X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믿고 권위를 유지함.
② 공개적 사건과 공통 지식 형성 (모두가 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됨)	•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어.”라고 소리치고 이를 모두가 듣게 되는 공개적 사건이 벌어짐. • 모두가 외침(X를 공개)을 들었고, 모두가 X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 • 사람들 사이에 ‘모두가 X를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공통 지식’이 순간적으로 형성됨.
③ 집단행동 조정, 기존 규범의 무력화	• ‘새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 무력화됨. • 백성들은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모두가 동시에 술렁이거나 점점 더 큰 소리로 웃는 등 사회적으로 새로운 ‘집단행동’을 조정하게 됨. • 임금은 X를 인정해야 하는 사회적 현실에 직면함.

** ㉡을 중심으로 한 (다)의 문제 상황 분석

(다)의 상황	공통 지식의 형성	사회적 결과
A 매체 (공영방송)	• ‘공직 선거 후보자가 특정 배경의 유권자들을 비하했다는 사실(X)’을 뉴스 보도라는 공개적 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림. • 이를 통해 사람들이 X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앎을 형성하려고 함. • 사람들 사이에서 해당 뉴스 시청이라는 수동적인 집단행동의 조정이 일어남.	•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 과정인 선거와 정치인의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함. • 선거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실을 알려 시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에 기여함. • 선거 후보자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통해 사실에 근거한 여론을 형성함.

(다)의 상황	공통 지식의 형성	사회적 결과
B 매체 (누리소통망 채널)	• X라는 사실보다 ‘A 매체가 편파적이라는 사실 (Y)’을 문제 삼는 공개적 사건을 일으킴. • 이를 통해 A 매체가 의도했던 X에 관한 공통 지식을 억압하고,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Y(A 매체는 편파적이다)라는 공통 지식을 형성하려 함. • 채널의 구독자와 지지자들이 짧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조회 수를 높이고 대량 악성 댓글로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이 X를 억압하고 Y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집단행동을 조정하게 유도함.	• 특정 세력의 대규모 지지에 힘입어 언론의 정당한 선거 감시 및 보도 기능을 위협함. • 선거 후보자 발언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방해함. • 매체 정보 소비자의 정치적 편향을 강화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 •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기보다 혐오와 비방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조장함.

*** (다)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의 예

- 매체를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억압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실에 기반하여 균형 잡힌 의견을 공유하는 언론 윤리 및 책무성이 누리 소통망의 채널 운영자들에게도 요청됨.
- 전통적 언론 이외의 대안 매체인 1인 매체, 인터넷 매체, 누리 소통망 매체의 언론 기능을 보장하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대규모로 전파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편향된 매체에 대한 시민적 점검과 자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디지털 사회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편견과 혐오, 비아냥과 비방, 부당한 집단 공격을 일삼는 집단행동은 민주적 공동체의 협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공통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자발적 사회 운동에 참여함(버킷 챌린지, 해시태그, 선풍 운동 등).
- 시민 개개인은 다양한 언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잠재적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수용하려는 역량과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비판적 문해력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미래 역량을 증진하는 세대별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함.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B〉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① 글의 구성 측면에서 ②~④의 순서로 서술 내용을 명료하게 구성·조직하고, 정확한 어휘와 표현 선택,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취하고 있다. ② (가)의 ㉠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관련 개념들을 활용하여 (나)의 이야기 상황을 해당 요소들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여 정확하고 짜임새 있게 설명하고 있다. ③ ②에서 구성한 공통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의 복합적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을 중심으로 사회적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④ ③의 분석 결과에 어울리는 사회적 해결 방안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서술한다.	①~④의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①~④의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 ①~④의 내용 중 한 가지만 충족한 경우 - 논제와 상관없이 동어 반복 및 정보의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 700자 미만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이내	1,250자 초과	1,100자 이상 1,150자 미만	1,050자 이상 1,100자 미만	1,000자 이상 1,050자 미만	950자 이상 1,000자 미만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원고지 사용법· 어문 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			-3 ~ -5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2점
- 단락 구분이 없거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인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글이 매끄럽다고 해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
 - ①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양비론으로 서술하는 경우
 - ② 논제와 관련 없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지나치게 경도된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분량의 상당 부분을 채운 경우

2025학년도 인문계열

오후1 · 문제

[문제] (가)의 인공 지능과 (나)의 ‘지리학자’를 (다)에서 제시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바야흐로 인공 지능(AI)의 시대라 할 만하다. 인공 지능은 인간에 의해 정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제안, 추천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인공 지능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메모리 용량을 갖추어 작동한다. 이러한 인공 지능은 외부에서 투입된 방대한 데이터를 이미 정해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처리하고, 어지러운 데이터 속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 통계적 개연성이 높은 출력물로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 지능은 정보를 가치 중립적으로 취급한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다.

인공 지능 기술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인공 지능이 단지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온갖 정보를 긁어모아 재조직한 ‘인터넷의 흐릿한 반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공 지능이 내놓은 근사한 결과물이 현실 세계의 원리와 맥락에 대한 능동적 경험과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공 지능은 있을 법해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는 있지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우리의 사회적 상식과 감각에 어긋나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 캐나다에서는 한 변호사가 인공 지능이 추천한 3개의 판례를 법정에 근거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그중 2개가 세상에 있지 않은 거짓 판례로 드러난 일이 있었다. 캐나다 법학회는 이 일이 법률 행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그 변호사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인공 지능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최근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인공 지능 제품들은 복잡한 연산을 거쳐서 대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이 인간사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인공 지능은 신문 기사와 학술 논문의 요약뿐만 아니라, 시 창작이나 맞춤형 교육과 같이 고도의 언어 사용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인공 지능 상담사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섬세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상담 언어를 학습한 AI가 24시간 대기하면서 화가 난 내담자들과 텍스트 기반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토로하는 이야기에 공감하며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친절한 답글로 추천해 준다. 이런 이유로 혹자는 ㉠인공 지능이 인간처럼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나]

여섯 번째 별은 열 배나 더 넓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노신사가 한 사람 살면서 커다란 책을 쓰고 있었다.

“됐다! 탐험가가 하나 오는구나!” 그는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벌써 멀리도 여행을 했구나!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야?” 노신사가 물었다.

“그 두꺼운 책은 뭐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세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어디에 바다가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도시가 있고, 사막이 있는지 아는 학자를 말한단다.”

“그거 참 재미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제야 직업다운 직업을 만났구나!” 그러고는 지리학자의 별을 슬쩍 둘러보았다. 이렇게 위엄 있는 별을 그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다.

“참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별에는 큰 바다도 있나요?”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산은요?”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맞는 말이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탐험가가 아니다. 나는 탐험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도시와 강과 산과 바다와 대양과 사막을 세리 다니는 사람은 지리학자가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돌아 다닐 수가 없어. 지리학자는 자기 서재를 떠나지 않는단다. 그러나 서재에서 탐험가를 맞이하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한 탐험가가 흥미로운 기억을 얘기하면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하게 되지.”

“그건 왜요?”

“거짓말을 하는 탐험가는 지리책에 큰 난리를 일으키거든.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로. 술 취한 사람은 하나를 둘로 보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이 있다고 기록할 거 아니니.”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다]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배운다. 우리는 무언가를 학습할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를 생산적으로 소화하여 이를 다시 말이나 글로 꺼내어 놓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용량은 제한적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마구잡이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기보다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학습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한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을 상세한 설계도로 제작하여 그에 따라 반복적으로 훈련을 거듭하면 초보자도 전문가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인간은 자신을 성찰하면서 배운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를 스캐너처럼 있는 그대로 찍어서 기억 속에 저장하지 못한다. 대신에 우리는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요 정보와 세부 정보를 판별하고, 이렇게 걸러진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라고 부르는데, 능동적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무엇을 더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질문하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점검 능력과 반성적 태도가 성공적인 학습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한다.

인간은 몸소 경험하면서 배운다. 우리의 지능과 신체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적 학습 시스템이다. 즉, 머리로 배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 도구, 자원, 환경과 주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인간은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으로 배운다. 우리는 일생에 걸쳐 외부 세계와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교감하면서 섬세한 세상 지식과 공통 감각을 배워나간다. 이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맥락과 경험이 중요하다.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예시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후2 · 문제

[문제] (가)의 문제 상황에 대한 (나)와 (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인간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주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지며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인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린아이의 경우, 더 급속도로 쇠약해진다. 우선 몸에 비축해두었던 당분이 바닥나고, 이어서 지방마저 모두 소진된다. 탈진 상태에 놓인 아이들은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면역 체계도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근육도 파괴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힘이 다 빠져버린 아이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다.

2024년에 발표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절대 빈곤층인 세계 기아 인구수는 약 7억 3,300만 명이다. 이는 전 세계 인구 11명 중 1명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거나 놓일 위기에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아 문제가 더 심각한데, 아프리카 인구 5명 중 1명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참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아 구호단체에 더 많은 기부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각자가 기아 구호단체에 더 많이 기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기아 구호단체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하면 그는 도덕적 칭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설령 그가 기아 구호단체에 전혀 기부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기아 구호단체에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그저 선택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기아 구호단체에 우리가 지닌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기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우리가 지닌 재산에서 얼마나 많이 기부해야 하는가?

[나]

누군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은 분명 나쁜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라면, 예외 없이 그러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예를 들어 갇이 자신의 어린 딸이 물에 빠져 고통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황에서 갇이 물에 빠진 딸을 구할 능력이 있다면 갇은 딸을 구해야만 할 것이다. 갇이 자신의 딸을 구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딸을 구하는 과정에서 갇의 신발과 옷이 더러워질 수 있고 이를 세탁하기 위해 일정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딸의 목숨과 비교할 때 이러한 손해는 분명 덜 중요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유로 갇이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재산 대부분을 사용해야 하더라도 갇은 딸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희생도 한 생명의 가치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물에 빠져 고통받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갇의 딸이 아닌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똑같이 중요하고 누군가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같은 것이라면, 내가 느끼는 고통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인간의 이익과 손해는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받아들이면 이 점은 더 분명하다.

[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닌 신체, 재산 등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기본권이 있다.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 따질 때 이러한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신장병을 앓고 있는 을에게 갇이 자신의 신장 중 하나를 주면 을이 신장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보자. 이 상황에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신장을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갑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지 판단할 때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부지런한 갑은 식량이 부족한 겨울을 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하며 충분한 식량을 비축했지만, 갑의 이웃인 게으른 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고 해보자. 겨울이 오고 식량 부족으로 을이 고통을 겪을 때 갑은 을에게 자신이 비축한 식량을 나눠줘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갑은 겨울이 오기 전 열심히 일했지만, 을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를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마지막으로, 누구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인간은 낯선 사람보다 자신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낯선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면 자신의 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보자. 갑은 자신의 딸 대신 낯선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갑에게는 자신의 딸의 생명이 낯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예시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4학년도 인문계열

오후1 · 문제

[문제] (가)의 ‘노자’의 입장에 의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고, (나)의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천지불인(天地不仁)]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짚으로 만든 개’는 짚으로 개의 형상을 만들어 제사에 쓰고 버리는 풍습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가령 태풍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커다란 재산 손실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태풍을 천지가 악의를 품고 인간에게 내린 벌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거대한 태풍은 바다를 휘저으며 물속에 공기를 공급하여 플랑크톤이 생기게 해서 어족들의 먹이를 풍부하게 만들며, 대기 중의 이물질들을 정화시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의 기능도 한다. 그렇다면 이를 천지가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베푸는 은혜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 천지는 태풍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삶을 방해하거나 돕긴 했지만, 그것은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일[무위(無爲)]이고 스스로 그렇게 나타난 현상[자연(自然)]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구절은 천지가 친애함과 멀리함 같은 인간적 의미의 덕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개개의 존재들에 대해 지극히 무심하고 그래서 공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물은 물과 공기, 햇빛, 땅과 같은 천지자연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천지자연은 무심하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

또한 노자는 앞의 구절과 대구를 맞추어 “성인은 어질지 않아서[성인불인(聖人不仁)]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기에서 ‘성인’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키는데, 성인 또한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백성을 대한다고 강조한다. 이 말에는 ‘어짚’, 곧 인(仁)을 천지 만물의 근본적 원리인 도(道)가 무너진 자리를 채우는 인위적인 덕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노자의 관점이 깔려 있다.

[나]

한 손님이 나에게 말했다.

“며칠 전 저녁에 어떤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때려죽이는 장면을 보고 개가 불쌍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부터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며칠 전 한 사람이 불이 활활 타는 화로를 끼고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님이 실망하며 말했다.

“이는 미물(微物)입니다. 나는 큰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한 까닭에 말한 것인데, 당신이 이같이 대꾸하니 나를 업신여긴 것 아닙니까?”

내가 말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두 한가지이니,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개와 이의 죽음은 한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를 들어 적절한 대조를 삼은 것이지, 어찌 당신을 업신여겨서 한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못 믿겠거든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마디에 골고루 피와 살이 있으므로 그 아픔이 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것으로서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 마음을 잠잠히 하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

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과 같이 보십시오. 그런 뒤에 나는 당신과 더불어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규보, <슬견설>

[다]



런던의 캠든 자치구 보도에는 ‘캠든 벤치’라는 이름의 콘크리트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앉는 바닥은 하나의 커다란 평면이 아니고 기울기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면으로 분할되어 있어 잠깐 앉을 데를 찾고 있다면 여러 비스듬한 면 가운데 하나를 골라 걸터앉으면 된다. 하지만 모서리가 있어 높기에는 불편하다. 그냥 앉아 있어도 10분 정도 지나면 불편해진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이 공공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한 도시 설계자들의 온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캠든 자치구 의회는 기존의 벤치들이 노숙자들의 수면, 청소년들의 스케이트보드 연습, 방황하는 청년 무리들의 회합 등과 같이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탈 행위에 오용·악용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벤치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였고, 그 결과 캠든 벤치를 설치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 벤치는 설치된 목적대로 벤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위와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적대적 건축물’ 중의 하나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 합격자 우수답안

(나)의 ‘나’는 큰 짐승과 미물의 목숨의 가치에 구별을 두고 미물의 죽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손님의 모순을 지적한다. 이로써 생명체의 목숨에는 경중이 없으며 공평히 여기는 관점이 있을 때 도를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달한다. 반면, (가)의 ‘노자’에 따르면 천지는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단지 무위한 자연일 뿐이다. 만물이 천지자연에서 비롯한 흐름에 속해 있으나 천지는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 때문에 공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나’의 관점과 비교했을 때 만물을 공평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노자는 나와 달리 천지 혹은 성인이 개별 생명체에게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죽음 역시 천지자연의 일부일 뿐이므로 일부러 생명체의 죽음에 관여하는 등 다른 생명체의 삶에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은 삼가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미물의 삶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나의 관점을 비판할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공감과 인위적 개입의 유무를 다루는 입장이 상이한 나를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주장과 같이 만물을 대할 때 공감과 같이 인간적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가치 판단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조성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적 성찰’이 없는 제도 마련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지 ‘캠든 벤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캠든 자치구는 벤치가 사회가 생각하는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의해 일탈 행위나 범죄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장시간 이용이 불편한 벤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일탈 행위나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쫓아낼 뿐이다. ‘캠든 벤치’의 설치 효과가 ‘벤치 주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위자의 일탈 행위 전반을 감소시키는 것까지 이어졌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일탈 행위자 배제는 비단 그들만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행인들의 휴식 또한 방해하게 된다. 적대적 건축물은 모두에게 적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회 저변에 깔린 차별적 사고가 물으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 또한 사회 문제를 단편적이고 무심한 관점에 의거하여 접근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고려한 뒤 ‘공감’과 같은 인간적 덕목에 근거하여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바로 그때 진정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채점 기준

1. 평가의 내용

- 1) 제시문 (가)에서 소개한 노자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옹호하거나 반박했는지 여부
- 2)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에 대해 수험생 스스로 가치 판단을 했는지 여부
- 3) 2)의 내용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제시문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했는지 여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노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옹호하거나 반박한 후,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에 대해 수험생 스스로 평가를 하고, 제시문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차례대로 서술한다.		10%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 및 논리적 일관성에 기반한 평가의 충실성	제시문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및 관점 적용의 적절성	제시문 (가)에서 소개한 노자의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입장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옹호하거나 반박한다.	20%
	글의 관점에 대한 판단의 주체성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에 대해 수험생 스스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정당성 혹은 부당성을 판단한다.	20%
	캠든 벤치의 시사점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	‘나’에 대한 노자의 판단에서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 이어지는 흐름에 있는 관점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제시문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40%

문장과 표현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평가한다.	10%
--------	--	-----

* 논리적 일관성을 지킨 내용 전개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가~라)가 가능함.

‘나’에 대한 노자의 판단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	캠든 벤치의 시사점	
① ‘나’에 대한 노자의 옹호: 개와 이를 무심하고 공평하게 보았다.	㉠ 이와 개를 구별하지 않고 대해야 한다는 ‘나’의 관점은 옳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 ① 캠든 벤치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별하여 더욱 소외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보통 사람들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가
	㉡ (그러나) 이와 개를 구별하지 않고 대해야 한다는 ‘나’의 관점은 그르다. 개와 이는 다른 존재이므로 달리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캠든 벤치는 선량한 시민들과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별하여 달리 대한 결과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일탈 행위를 막은 성공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나
② ‘나’에 대한 노자의 반박: 개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어질게 대한 것이었다.	㉢ (그러나) 인간으로서 불쌍한 동물들을 어질게 대하는 것은 훌륭한 덕목이다.	➡ ①’ 캠든 벤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질게 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보통 사람들도 불편해진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다
	㉣ 동물을 어질게 대하는 것은 옳지만, 개와 이는 가치가 다른 존재이므로 달리 대해야 한다.	➡ ②’ 캠든 벤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통 사람들과 구별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일탈 행위를 막았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이다.	라

※ ①과 ①’의 쌍과 ②와 ②’의 쌍은 결론은 비슷하지만 근거에서 차이가 있음.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① 글의 구성 면에서 ②~④의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 면에서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취하고 있다. ② 제시문 (가)에서 소개한 노자의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입장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옹호하거나 반박한다. ③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에 대해 수험생 스스로 정당성 혹은 부당성을 판단한다. ④ ②에서 ③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있는 관점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제시문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①~④의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①~④의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 700자 미만.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이내	1,250자 초과	1,100자 이상 1,150자 미만	1,050자 이상 1,100자 미만	1,000자 이상 1,050자 미만	950자 이상 1,000자 미만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원고지 사용법·어문 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		-3 ~ -5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글이 매끄럽다고 해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
 - ① 선택 가능한 두 가지 관점이나 평가의 방향을 모두 포괄하여 나열하는 경우
 - ② 노자의 자연관/성인관을 답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
 - ③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분량의 상당 부분을 채운 경우

오후2 · 문제

[문제] (가)의 ㉠에 대하여 (나)의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답할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논하고, (가)의 ㉡을 (다)의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정당화한 후 그 정당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 우리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미래에 존재할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X국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현재 X국에서 천연자원을 보존할지 써버릴지를 놓고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 천연자원을 보존한다면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고 일상의 생활 방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은 자원을 써버릴 때보다 낮아지지만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현재 세대가 겪는 불편에 비해 미래 세대가 누리게 될 복지 수준은 훨씬 높을 것이다. 반면 천연자원을 대부분 써버리면 현재 세대는 편리하겠지만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은 낮아질 것인데, 이 경우 현재 세대가 누리는 복지에 비해 미래 세대가 자원 부족 때문에 겪게 될 불편은 훨씬 클 것이다. 단, 두 경우 모두 현재 세대나 미래 세대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없을 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세대가 자원을 보존했을 때 생겨날 미래 세대 사람들(미래 세대 A)과 대부분 써버렸을 때 생겨날 미래 세대 사람들(미래 세대 B)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세대의 자원 정책 선택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령 현재 세대가 어떤 자원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사회 직업군 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는 누가 누구와 만나 자녀를 낳을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이다. 결국 자원 정책의 차이가 야기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미래 세대의 구성원을 크게 바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X국에서 현재 세대가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써버리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그 이유는 자원을 대부분 써버렸을 때 존재할 미래 세대 B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천연자원 부족으로 피해를 볼 미래 세대 B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세대의 그러한 자원 정책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만약 현재 세대가 자원을 보존했다면, 앞서 언급한 이유로 미래 세대 B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 세대 A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가정에 의해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는 미래 세대 B의 삶은 그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X국에서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옳지 않다.

[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의 제정에 동의해야 하고, 이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힘을 지닌 국가의 창설에도 동의해야 한다.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도덕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다른 사람도 따를 것이라는 조건하에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규칙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조건1]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들과 축구 게임을 하던 갑이 갑자기 축구 규칙 가운데 몇 가지를 어기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갑이 계속 게임에 참여하려면 축구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갑이 규칙을 따르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에 참여한 사람 누구든 축구 규칙을 준수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도 이와 유사하다. 여기서 게임은 사회생활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생산 수단, 과학적 지식, 기술,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누리며, 이런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마치 축구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얻으려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익을 얻으려면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조건2]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이 약속을 준수했을 때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고, 약속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앞서 언급한 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생겨날 미래 세대가 특정한 누구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생겨나게 될 서로 다른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그 중에 더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는 미래 세대가 생겨나게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본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최선의 결과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최선의 결과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의 총량에서 고통의 총량을 뺀 순수 쾌락의 총량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쾌락이나 고통과는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가령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정책이 몇몇 사람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지만 순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공리주의는 이러한 정책이 옳다는 점을 함축한다.

■ 합격자 우수답안

제시문(가)의 ㉠인 ‘우리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시문(나)의 사회계약론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사회계약의 입장을 알아보겠다. 사회계약론은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 실현을 강제할 국가의 창설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이 규칙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의무도 존재한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 조건들을 통해 위의 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을 뒷받침할 수 있다.

우선 도덕적 의무의 성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가)의 ㉠을 보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의 구성원과는 암묵적 약속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이유에는 자신이 사회적 이익을 누리기 위함인데 존재하지 않는 미래세대에게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상호’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은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는 처벌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조건과 같은 맥락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들이 규칙을 어기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없다.

한편 제시문(가)의 ㉡인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은 옳지 않다는 주장은 제시문(다)의 공리주의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미래 세대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더 높은 복지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제시문(가)에 비추어 보면, 미래 세대가 A인지 B인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B의 구성원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자원부족으로 고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은 부정될 것이며 오직 높은 복지를 누리게 하는 정책이 선이므로 ㉡은 정당화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결정에 반대한다. 오로지 최대이익, 최소고통만을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사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였을 때, 순수 쾌락의 양을 따지는 과정에 있어 제외되는 소수의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쾌락의 최대화에만 집중한다면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것이다. 즉 공리주의는 전체주의를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1. 평가의 내용

- (1) 제시문 (가)에 소개된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특히 현재 세대가 자원을 보존했을 때 생겨날 미래 세대 사람들(미래 세대 A)과 대부분 써버렸을 때 생겨날 미래 세대 사람들(미래 세대 B)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지니는 도덕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2) 제시문 (나)에 소개된 사회계약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에 (나)에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이 각각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가?
- (3) 제시문 (다)에 소개된 공리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에 제시된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에 잘 적용하였는가?
- (4)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 정책에 대한 공리주의의 정당화 방식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며 설득력 있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 (5) 문장이 정확하고, 서술이 자연스러우며, 구성이 안정되고 균형 잡혀 있는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서술의 흐름이 유기적이고 내용 및 구성이 균형 잡혀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이해, 분석, 적용	(가)의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 이해	(가)에 소개된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히 천연자원 소모 정책과 보존 정책을 각각 실시했을 때 서로 다른 미래 세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천연자원 정책을 선택하는지가 지니는 도덕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5%

	(나)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해	(나)에 제시된 사회계약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관련해 그것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며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한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고려할 때 조건 1, 2가 각각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	25%
	(다)의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	(다)에 제시된 공리주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 (가)의 자원 보존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자원 보존 정책과 자원 소모 정책 중,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전자임을 순수 쾌락의 총량을 언급하며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당화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며 그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주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 공리주의는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인구수가 (훨씬) 많다면, 자원 소모 정책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이 낮더라도, 순수 쾌락의 총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 즉 자원 소모 정책도 정당화 가능하다.	30%
문장과 표현	단어와 문장 및 표현이 자연스러우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❶ 단어 및 문장의 표현이 정확하고, 서술의 흐름이 유기적이며, 내용 및 구성에 균형이 잡혀 있다. ❷ 제시문 (가)에 소개된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천연자원 정책을 선택하는지가 지니는 도덕적 함의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 ❸ 제시문 (나)의 사회계약론을 분명히 이해하고, 도덕적 의무와 관련해 그것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며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건 1이 현재 세대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 사이에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건 2가 현재 세대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 사이에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분명히 밝히고 있다. ❹ 제시문 (다)의 공리주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제시문 (가)의 자원 보존 정책이 그것에 의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자원 보존 정책과 자원 소모 정책 중,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전자임을 순수 쾌락의 총량을 언급하며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화의 장점이거나 단점을 고려하며 그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제시하고 있다.	❶ ~ ❹의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❶ ~ ❹의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 없는 내용의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4. 형식상의 감점 내용**(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이내	1,250자 초과	1,100자 이상 1,150자 미만	1,050자 이상 1,100자 미만	1,000자 이상 1,050자 미만	950자 이 상 1,000 자 미만	900자 이 상 950자 미만	850자 이 상 9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
원고지 사 용법·어문 규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		-3 ~ -5점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
- 단락 내의 형식적, 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5. 유의 사항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